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성과를 원점에서 점검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 4개월 간의 대장정 돌입

- 외부공모, 시민사회·관계부처 추천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15개 분야, 총 150명)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 시민사회 참여를 통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
- 4개월 간 약 2,700개 사업을 평가, '27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평가로, ‘재정혁신의 파수꾼’으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평가단에 당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28일(수) 16: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위원들을 격려했다.

* 단장: 우석진 교수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성과평가단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각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하였다.

성과평가단은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1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위해 관계부처 추천과 공개모집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였다. 특히,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전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와 평가단, 전문가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통합평가는 20여 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국민주권정부의 첫 재정사업 성과평가인 만큼,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차관은 평가위원들에게 세 가지 역할을 당부하였다. “먼저, 비효율적인 예산을 면밀히 살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출 효율화의 설계자’가 되어줄 것, 두 번째로 소관 부처와 충분히 소통하되 전문성에 기반한 엄정한 평가를 하는 ‘중립적인 감시자’가 되어줄 것,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와 비효율을 가감없이 지적하는 ‘국민의 눈’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가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과 분과별 평가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과평가단은 앞으로 약 4개월간 2,700개 수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평가 결과는 5월 말경 각 부처에 통보하고 하반기 중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정성과국 통합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만구 (044-214-3250)
		담당자	사무관	최현화 (hyunhwa@korea.kr)

